

조선 후기 방회의 구성과 방임의 사회적 위상

나영훈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adolf3@naver.com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방회의 구성과 변천
 - III. 조선 후기 방회 구성원의 사회적 위상
 - IV. 영조 대 공식 방회의 혁파 배경
 - V. 맷음말
-

I. 머리말

방회(榜會)는 동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통 동년계(同年契), 동방계(同榜契)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방회도, 방회록의 자료가 남아 있다. 문과 모임은 용방회(龍榜會), 사마시 모임은 연방회(蓮榜會)라 구분하기도 했다. 동방계 혹은 방회 등으로 지칭되는 동일 시험 급제자의 모임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다. 중국에서는 당송 대에 과거를 매개로 한 ‘동년회(同年會)’가 성행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¹ 중국에서 과거제를 도입한 고려 역시 유사한 성격의 모임이 존재했다. 그 모임은 조선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태종 이방원은 조선 건국 이후 자신의 동년 급제 인프라를 활용해 정치적 유대감을 지속했다.² 조선은 과거의 좌주-문생제의 폐단을 인식하고 이를 간의 정치적 연대감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송 대나 고려와 같은 과거 급제자들의 정치적 연대는 조선조 들어와 지속될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럼에도 조선조에는 꾸준히 동일 문과 급제자, 혹은 동일 사마시 급제자 상호 간의 유대감을 이어 가고 있었다.

그간 조선시대의 동년 급제자, 동방의 인연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 같이 지공기(知貢擧)와 급제자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좌주-문생제가 사라진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좌주-문생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방 급제의 인연은 미약할 것으로 전제되었고 이들의 정치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1-RC01).

1 배숙희, 「송원대 과거를 매개로 한 동년관계와 동년 간의 교류」, 『동양사학연구』 132(2015).

2 전세영, 「태종 집권기 동년 급제자들의 관직 활동과 동년에 대한 태종의 인식」, 『인문과학 연구』 37(2018).

적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 동력 역시 상실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동방들의 모임인 계회가 설행되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계회도 속에서 이들의 끈끈한 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의 조선시대 방회나 동방계에 대한 인식은 친목과 결속의 장치로서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고 정치적 연대나 결속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남아 있는 계회도 자체가 소략하고 또 만들어진 계회도 역시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모임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장유가 남긴 〈임오사마방회지도(壬午司馬榜會之圖)〉의 서문을 쓰면서 상례적 방회는 기념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한 것에서 알 수 있다.³ 따라서 조선시대 동방계는 대부분 친목 모임과 교유에 초점이 있었다.⁴ 반면, 애초 방회의 성립 목적에 관해서도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닌, 고려와 조선 초까지 이어 온 좌주-문생제에서 파생된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는 연구가 있으며,⁵ 더 나아가 사마소를 통해 사람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사마시 입격자들을 중시한 연구도 있다.⁶

물론 여전히 방회의 설립을 정치적 이유가 아닌 친목과 결속의 장치로 이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회는 결국 관직에 나아가는 이들의 상호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문과 급제보다 사마시 입격자의 방회가 더 활발했고, 이에 따라 동방회의 정치성은 없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사마시 입격자들은 관직 제수와 큰 관련이 없

3 張維, 『谿谷先生集』 권7 「壬午榜會帖後序」, “동방자가 모이는 방회는 보통 있는 일이며 더욱 이 참방에 일천한 자일수록 회합이 잦은 법이니, 그 모임이 상례적이면 기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 횟수가 잦으면 이를 모두 기념할 수도 없다”.

4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4); 윤진영, 「임오년(1582) 사마시 합격 동기생들의 방회도」, 『문현과해석』 15(2011), 138-147쪽.

5 “단순한 친목의 뜻을 넘어선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고 관료적 진출을 꾀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모임은 필요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홍렬, 「사마시 출신과 방회의 의의: 임오사마방회지도에 나타난 관원사회의 공동의식」, 『사학연구』 21(1969).

6 이태진,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 (上)」, 『진단학보』 34(1972).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사마시 입격자들이 음관의 주요한 후보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⁷ 이들의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특히 조선시대 사마시의 경우 방회가 남아 있는 계회도와 별개로 방방이 끝나면 공식적인 방회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했다.⁸ 사마시 입격자의 경우 200명이나 되는 합격자의 규모와 이들의 관직 진출, 또한 이들의 상례적이고 공식적인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모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간 방회 연구가 남아 있는 계회도를 중심으로 한 사적인 계회도에 집중되었기에, 이들의 사적 친목과 결속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방회에는 대부분의 방회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방회가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성격의 방회에 관해 검토할 때 ‘동방’, ‘동년’의 인연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기존 방회 연구에서 1741년 영조 대를 기점으로 공식적 방회가 제도적으로 사라졌으며, 사적인 방회 역시도 18세기 이후에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방회의 설치 자체가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사마시 입격의 사회적 위상이 감소되는 것에서 그 배경을 찾았다.⁹ 물론 이 역시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공식적 방회의 폐지는 영조 대 격화된 당쟁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수습책의 일환으로 방회 폐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 방회의 폐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 역시 이 연구의 주요 주제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방회’ 가운데 방방이 끝나면 설치된 공식적 성격의 ‘방회’에 주목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7 박현순, 「조선 후기 음관의 초입사 임용」, 『규장각』 58(2021).

8 김덕수, 「조선시대 방방과 유가에 대한 일고」, 『고문서연구』 49(2016).

9 박정혜, 「16, 17세기의 사마방회도」, 『미술사연구』 16(2002).

방회의 핵심 구성 원인이었던 방임들의 존재와, 그들의 정치적 위상 및 인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방회의 정치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회의 정치적 성격이 결국, 방회의 폐지로 귀결되고 있었음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조선시대 관료들의 핵심적인 결속 모임이었던 방회, 즉 동방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조선시대 방회의 구성과 변천

고려시대에는 좌주와 문생의 관계를 통한 강력한 정치의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좌주는 과거 시험의 시험관이었고, 문생은 해당 과거시험 급제자였다. 이들은 이후 관직 생활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집단화되었다. 문생들은 좌주를 스승으로 여겼고, 서로를 부자관계로 이해할 정도로 돈독한 인식을 지녔다.¹⁰

또한 문생 상호간은 의가 형제와 같고 정이 골육만큼 깊다고 할 정도로 돈독했다.¹¹ 이와 같은 과거시험을 매개로 한 시험관과 급제자, 급제자 상호 간의 결속은 중국에서부터 일찍이 존재했던 것이다.¹² 중국의 과거제도를 도입한 고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연회를 통한 유대 관계를 강화했고, 서로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유대관계를 공고히 했다. 고려 후기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한 배경의 하나

10 田祿生, 『埜隱逸稿』 권6 尊慕錄附, “門生之於座主 猶子之於父也 門生座主恩義之全 足以培養國家之元氣”.

11 李集, 『遁村雜詠』 附錄 贈崔元道.

12 중국의 지공거와 동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숙희, 앞의 논문(2015); 배숙희, 「원대 과거제와 고려진사의 응기 및 수관」, 『동양사학연구』 104(2008) 등을 참조했다.

로, 이제현을 좌주로 한 문생 집단이 정치세력화하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 노력에도, 좌주와 문생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¹³

고려 말 좌주문생의 끈끈한 관계에 관해서는 이 시기 활동한 목은 이색, 익재, 이제현 등의 문집에 나타난 교유관계를 통해서도 이해가 가능하다.¹⁴ 실제로 고려 말기 우현보, 이색, 정몽주 등은 좌주로서 정치세력 집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이들이기도 했다.¹⁵ 한편, 조선 태종 대 역시도 즉위와 동시에 제도적으로 좌주문생제를 혁파하며, 함께 급제한 동료들의 동류의식을 없애 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고려시기 과거급제자로, 동년 급제자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¹⁶ 이처럼, 방회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성될 여지가 매우 높은 모임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동년’ 혹은 ‘동방’에 대한 사적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은, 우선적으로 좌주문생제가 선조에 이미 폐지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있다.¹⁷ 또한 현존하는 동방계회도 (同榜契會圖) 자체의 수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들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 지극히 사적인 인연과 친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3 고려의 좌주와 문생은 이익주, 「공민왕대 개혁의 추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현길』 5(1995)을 참조했다. 이익주는 고려후기 과거 급제 문신이 신흥유신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동력의 하나로 좌주문생제도를 꼽았다.

14 체웅석, 「목은시고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역사와현실』 62(2006).

15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16 전세영, 앞의 논문(2018).

17 고려 공민왕 대부분 조선 태종까지, 좌주문생제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정치세력화할 것을 우려한 국왕의 지속적인 견제와 함께 결국 폐지되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좌주문생제는 1413년(태종 13) 1월 혁파되었다. 정치현, 「여말선초 과거문신세력의 정치동향」, 『한국학보』 17-3(1991).

그런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문과’의 동년 모임이 매우 소략했던 것에 비해,¹⁸ ‘소과’의 동년 모임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남아 있다. 소과 동년 모임은 남아 있는 계회도를 근거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소과 동년 200명의 모임이 아닌, 그 중에 특수한 인연을 지닌 몇 명의 모임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 꾸준히 진행되었던 소과 동년 모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잘 알려진 사적인 인연의 동방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회가 끝나면 상시적으로 개최했던 공적인 성격의 동방계이다.

사마시의 방회는 본래 소과 회시가 끝나고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 그 명단을 공개하는 ‘출방’이 있은 다음 ‘방방’을 하기 전에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출방이 끝나고 장원이 결정되면, 장원이 ‘방임’을 구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방회를 개최한다. 방회는 보통 한양 도성의 삼청동에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⁹ 이때는 소과가 끝난 직후였으므로, 합격자 200명이 다 함께 모이는 거의 유일한 회합의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마시의 공식적인 방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방회는 한 번의 시험에 한 번만 존재한다.

반면, 방회와 관련된 연구는 물론이고, 현재 남아 있는 ‘동방계회도’는 대부분 앞서 언급했던 출방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방회가 아닌, 방방 까지 모두 끝나고 한참 이후에 어떤 특정한 인연이나 필요에 따라 결성이 가능한 동방 급제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종의 사적인 친목과 결속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계유사마동방계회도’는 1573년(선조 6) 합격한 사마시 급제자 가운데, 1602년(선조 35),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지난 이후에 영남에서 벼슬살

18 이는 좌주문생제 폐지와 관련되었다.

19 김덕수, 앞의 논문(2016).

이를 하거나, 영남에 생존해 있던 사람 약 15명이 참여한 지극히 사적인 모임이었다. 당시 서문을 지은 이시발은 동방이란 같은 해에 급제한 사람이며 모두 형제 같은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²⁰ 또 한편으로 신축년 사마회 계첩에서도 “사마시에 함께 합격한 이들이 서로들 동년(同年)이라고 일컬으면서 형제의 의를 맺고 천륜에 비기려고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돋독한 정의를 강조했다.²¹

1630년(인조 8) 임오사마방회도의 서문을 보면, 우복 정경세는 임오동년(1581년) 가운데 창석 이준이 삼척부사로 나가는데, 우리 동년 가운데 도성에 남아 있는 사람이 12명뿐이니, 석별의 정을 펴고자 방회를 개최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방회를 열고 환담을 나누면서 냅시 즐겼다고 한다.²² 즉, 동년 49년이 지나 정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남아 있는 약 10여 종에 이르는 계회도는 대부분 10여 명 안팎의 사람이 당대 특정한 인연에 따라 구성한 모임이다. 이처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던 동방계 혹은 방회였기 때문에, 계회도를 남기고 성대히 자축했던 것은 자연스러웠고 이에 따라 계회도와 같은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던 것이다. 이 연구들을 토대로 소과 모임인 동방계는 대체로 실제로 친목과 결속을 위한 장치로서 더 많이 부각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계회도 약 10여 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방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방회는 이처럼 특정한 인연으로 결성된 사적 방회보다 출빙한 이후 공식적으로 거행되는 방회가 훨씬 많았고, 또 훨씬 많은 구성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회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洪履祥,『慕堂集』「附錄」, ‘癸酉司馬榜重會圖跋[李時發]’.

21 崔峴,『簡易集』권3「跋」, ‘辛丑司馬會帖跋’.

22 鄭經世,『愚伏集』別集 권1, ‘壬午司馬榜會圖序’.

여기서는 간략히 기존 성과를 참조하며, 당시 방회 구성과 방임의 역할, 그리고 그 선발에 대한 대략적 상황을 살펴보자.²³ 방회에 대한 기록은 1535년(중종 30) 3월 19일, 참방회(參榜會)에 대한 기록이 가장 앞선다.²⁴ 최소한 이 시기 이전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1490년 방중유사(榜中有司)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방회는 성종 대 이미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방회와 관련된 제마수의 존재는 1407년(태종 7)에 이미 존재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공식적 방회 역시 조선 초기에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작 연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방목에 방임이 확인되는 것은 1568년(선조 1)부터 이지만 앞서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회와 방임은 조선 성종 대 이전부터 이미 구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시기는 자료의 한계로 명확히 어떤 방임이 있었고, 또 방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선조 대 이후 존재했던 방임을 대상으로 방회에서의 방임 구성과 절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

공식적으로 출방이 끝난 이후 구성되는 ‘방회’에서는 출방 이후의 여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방임을 선정하고 역할을 맡겨야 했다. 당시 동년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시관들을 은문으로 여겼고, 이에 따라 이들을 대우할 연회를 베풀어야 했다. 또한 동년 200명의 시권을 수합하여 책자로 보관하거나, ‘방목’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했다. 더 나아가 알성 등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이 동년들을 대표할 역할도 필요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장원이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동년의 여러 사무를 살필 사람들을 ‘방임’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했다. 초기에는 ‘방중유사’라고 해서 동방의 업

23 방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김덕수, 앞의 논문(2016), 35~41이 좋은 참고가 된다.

24 『中宗實錄』30년(1535) 3월 19일.

무를 살필 담당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각 행사나 업무에 따른 역할의 분담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명목의 방임들이 선발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방임은 보다 구체화되어 그 구성원이 정립되기 시작한다. 본래 방임은 방중색장이나 제마수 등만 확인되지만, 인조 대에서 숙종 대 무렵부터 방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문색장, 수권색장, 공포색장 등의 명목으로 방임이 구성되어 동방의 사무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오로지 장원의 권한이었다. 이에 따라 장원의 위상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해수가 율곡 이이에게 “나이 차례로 앉는 것은 성균관에서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동방에서는 장원을 존경하니 이 또한 예절이니, 어찌 장원 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율곡은 “장원을 존중하는 것은 방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성균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서,²⁵ 방회에서 장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음을 알려 준다. 또한 출방한 이튿날 동년 전체가 장원 집에 나아가 명함을 올리며 예를 표했다. 감히 읍하지 못하고 절을 했으며 나란히 걷거나 앉지도 못했다고 한다.²⁶

동방의 사안을 주관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일찍부터 등장한 직임은 방중유사이다. 1490년(성종 21) 10월 28일 기사에, 홍경창이 1489년 동방인 가운데 유사(有司)가 되어서 동방인의 직함을 써서 비치는 일을 도맡았다고 하면서, 방중유사가 존재했음을 알려 준다.²⁷ 이로써 조선에 일찍부터 동방의 일을 맡아보는 유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문과의 동방인 가운데 선출된 유사를 말하는데, 이후 동방인들이 시관을 은문(恩門)으로 여기고 연회를 베풀었던 기록이나, 제마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방

25 金長生, 『沙溪全書』 권6 행장, ‘栗谷李先生行狀’.

26 尹國馨, 『閭韶漫錄』.

27 『成宗實錄』 21년(1490) 10월 28일.

중의 일을 담당하는 ‘방임’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마수는 선초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종~성종 대 활동한 정극인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매번 생원과 진사의 신방시에, 재력이 넉넉한 사람을 택하여 동방인을 대접하게 하고 장원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했는데,²⁸ 이를 제마수라고 했다고 하면서 동방 사이의 연회나 동방인 가운데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동방의 일을 전담하는 방중색장(榜中色掌)은 1568년(선조 1)부터, 방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중색장이 선조 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당시 모든 방목에 이 방임들의 명단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1568년부터 1576년, 1582년, 1588년, 1589년, 1603년, 1605년, 1606년, 1610년, 1612년, 1613년, 1616년, 1617년 등 다수의 사례에서 선조~광해군 대 방중색장이 선정되어 역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주로 방중색장으로 기록되었고, 드물게 은문색장, 별유사, 방중유사가 존재하기도 했다. 인조 대부터는 대부분의 방목에 방중색장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문색장은 1576년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며, 이후에는 기록에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1681년(숙종 7)부터 거의 모든 방목에 주기적으로 확인된다. 제마수는 1646년부터 방목에서 확인되지만, 앞서 보았듯이 매우 일찍부터 존재했던 직임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675년(숙종 1)부터는 수권색장과 공포색장이 확인되어서 ‘방임’은 방중색장, 은문색장, 제마수, 수권색장, 공포색장의 5개 직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방중색장은 생원시 장원과 진사시 장원이 상의해 각각 5명을 선발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200명 가운데 5%인 10명이 방중색장으로 방의 사안을 도맡았던 것이다. 이들은 성적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문벌에 의

28 丁克仁,『不憂軒集』권1 詩, ‘寄泰仁諸儒’.

지하여 선발되었다고 알려졌다. 1699년(숙종 25) 11월 17일, “대저 방중에서 지목된 사람들은 대개 권세가의 자제들이다.”라는 언급이 있으며,²⁹ 1738년(영조 14) 4월 20일에는 “방색(榜色)으로 특별히 선정한 것과 당후(堂后)에 수망(首望)으로 의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방중색장이 향후 관료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임을 암시한 대목도 확인된다.³⁰

한편 방중색장 선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록도 볼 수 있다. 정암 민우수의 아들인 민백겸이 1747년 이른 나이에 사망하여서, 부친인 민우수가 아들의 묘지명을 지으면서, 아들이 방중색장이 되었던 내력과 방중색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민우수는 “소과의 방이 난 뒤에 으레 방회를 설치하여서 1등 10인이 각각 1인을 취하는데 이를 방중색장이라고 했다. 대개 반드시 명문 집안 자제 중에 명망이 있는 자라야 참여할 수 있는데, 엄선된 자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방중색장이 명문 집안에서도 역량 있는 자를 장원이 선발했음을 알려 준다.³¹ 이처럼 방중색장이 당대 중요하게 생각되었기에, 1717년 이기진은 진사시에 입격된 이후 숙부인 이여에게 사마시 입격 이후 색장에 선발되었는지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했다.³²

1769년(영조 45)에도 황윤석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진사와 생원의 장원을 중시하여서 매번 새로운 방목을 발표할 때마다 반드시 방회를 열어 방임을 선발했는데, 방중색장, 은문색장, 공포색장, 수권색장, 제마수라 했다. 근래에 장원을 문벌로 뽑지 않으면서 방회가 폐지되고 여러 방임도 폐해졌다.”고 했다.³³ 이 시기는 이미 방중색장이 폐지된 이후지만, 황윤석은 방회에서

29 『肅宗實錄』25년(1699) 11월 17일.

30 『承政院日記』英祖 14년(1738) 4월 21일.

31 閔遇洙, 『貞菴集』권10 墓誌, ‘次子進士墓誌’.

32 李奮, 『睡谷集』권19 書, ‘示從子箕鎮書’.

33 黃胤錫, 『顧齋亂藁』, 1769년 5월 8일.

방임이 문벌을 기용했음을 분명히 기록했다. 이처럼 방중색장에 관한 관심과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러 사료에서 누누이 확인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실제 방중색장이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III. 조선 후기 방회 구성원의 사회적 위상

조선시대는 관인 사회였고 양반으로의 신분 유지와 관직 획득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관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했다. 문과 급제자가 관직을 바로 획득하는 것에 비해 소과 입격자는 관직 진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생원 진사는 관인적 지위보다는 향촌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더 큰 관심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생원진사의 획득은 관직 획득에도 중요했다. 조선 후기 음관의 초입사 진출에서 생원진사 출신에게 주어진 정원이 80% 수준이었다는 최근 연구는, 생원진사와 관직 진출의 상호 관련성을 시사한다.³⁴

방회의 구성원인 방임의 관직 진출 여부는 이들의 지위나 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생원진사의 관직 진출 정도와 이 가운데 방중색장이 차지하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조사한 관직 이력은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참하관의 경우 관력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관직 이력 전제는 기록에 확인되는 관직 이력자이므로, 생원진사와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에 대한 최소한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

34 박현순, 「조선 후기 蔭官의 初入仕 임용」, 『규장각』 58(2021), 366쪽.

1. 생원진사의 관직 진출 비중

기존 연구에서 생원진사는 이후 문과 급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거나, 음관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거나 혹은 무직사류로서 남는 경우로 구분해 이해 했다.³⁵ 지금까지는 문과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을 분석한 것이 일반적이었고, 음관을 통한 관직 진출이나 무직사류로 남는 소과 입격자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과 입격자가 어느 정도로 관직에 진출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우선 조선 후기 생원진사가 어느 정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생원진사는 알려진 수효만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특정 시기를 지정해 사례 조사를 했다. 필자는 1650년(효종 1), 1684년(숙종 10), 1708년(숙종 34), 1733년(영조 9) 등 약 25~30년 주기로 각 시험당 200명씩 모두 800명의 생원진사의 관직 진출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표1〉을 보면 조선 후기 대략적인 생원진사 입격자의 관직 진출 정도와 초입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전체 생원진사에 비해 표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개략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만 활용하고, 특히 방증색장의 관직 진출과의 비교 대상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조선 후기 생원진사는 800명 가운데 217명, 평균 27% 정도가 음관을 제수받았다. 여기에는 이후 문과에 급제한 인원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 생원진사 가운데 제한된 인원만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시기적으로도 유사한 수준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1650년(효종 1) 34%가량이 음관을 제수받았고, 이후에는 50명, 25% 정도가 음관으로 진출했다. 생원과 진사 역시 큰 차이 없

³⁵ 최진우,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1993), 160~175쪽.

표1-생원진사의 초입사 비중³⁶

구분	음관	문관	소계	미입사	미상	합계
1650	68(34.0)	26(13.0)	94(47.0)	102(51.0)	4	200
생원	37	12	49	49	2	100
진사	31	14	45	53	2	100
1684	50(25.0)	37(18.5)	87(43.5)	108(54.0)	5	200
생원	25	14	39	59	2	100
진사	25	23	48	49	3	100
1708	49(24.5)	23(11.5)	72(36.0)	127(63.5)	1	200
생원	23	6	29	70	1	100
진사	26	17	43	57		100
1733	50(25.0)	28(14.0)	78(39.0)	119(59.5)	3	200
생원	19	11	30	69	1	100
진사	31	17	48	50	2	100
합계	217(27.2)	114(14.2)	331(41.4)	456(57.0)	13	800

이 음관을 제수받았지만 1650년에는 생원이 진사에 비해 조금 더 많았던 것에 비하면, 1684년에는 같아졌고 1708년에는 진사가 조금 더 많이 음관을 받았다가, 1733년에는 진사가 생원보다 더 많이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원진사는 음관 외에도 문과 급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음관의 제수 연령이 생원진사는 30세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20대에 생원진사에 입격한 이들 가운데 음관을 제수받지 않고 문과 급제를 통해 관직에 나간 경우도 더러 확인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음관을 제수받지 못한 인원들이 문과를 통해 관직을 진출했다. 샘플 대상이 된 800명 가운데 문과

³⁶ 팔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음관 진출자에는 음관을 받은 이후 문과에 급제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문관은 생원진사 입격 이후 문과에 급제되고, 문관으로 초입사를 한 인원을 집계했다.

급제자는 141명(17.63%)이지만,³⁷ 문과 급제자 가운데 음관을 초입사로 받은 인원이 27명 확인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문과를 통해 처음 관직을 제수 받은 인원은 114명(14.2%)으로 확인된다. 즉, 문과 급제를 통한 관직 진출자 114명, 음관으로 초입사한 인원 217명을 합친 331명, 41.4%가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원진사 입격자는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관직에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관직 진출 추이는 시기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650년(효종 1)에는 200명 가운데 94명(47%)이 관직에 진출했다. 음관으로 제수된 사람은 68명(34%), 문과로 초입사한 경우는 26명(13%)였다. 1684년(숙종 10)에는 87명(43.5%)이 관직에 진출했다. 음관으로 초입사한 경우는 50명(25%), 문과로 초입사한 경우는 37명(18.5%)였다. 앞선 시기보다 관직 진출 인원이 감소했는데, 당시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³⁸ 1708년(숙종 34)의 경우는 200명 가운데 72명(36%)이 관직에 진출했다. 생원진사 입격자의 관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음관 진출자는 49명(24.5%)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문과로 초입사한 경우가 23명(11.5%)으로 앞선 시기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 전체적인 관직 진출에도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1733년(영조 9)에는 모두 78명(39%)이 관직에 진출했다. 음관 진출자는 50명(25%)으로 유사했고, 문과 급제자는 28명

37) 최진우의 분석에 따르면, 알려진 생원진사 4만 649명 가운데 5,882명(14.47%)이 조선시대 생원진사의 문과급제자 비율이다(위의 논문, 160~161쪽).

38) 앞선 시기보다 음관 진출은 물론 관직 진출한 사람 자체가 줄었는데, 이는 이 시기 입사한 관원들의 초입사가 길었기 때문이다. 이는 1689~1694년까지 기사환국의 여파로 남인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앞선 시기보다 음관 진출자가 다소 적었던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이 시기 참하관에서 관력을 끝낸 음관도 많았다. 이는 한국의 영향과 함께 늦은 입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반면, 문과로 초입사한 경우는 이 시기에 가장 많았다.

표2-생원진사의 거주지별 관직 진출 확률³⁹

구분	근기 지역			삼남 지역			북방 지역				미상	합계
	서울	유수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평안	함경	황해		
음관 초입사	162 (43.3)	2	5	4	9	20	6	2	5	1	1	217
문관 초입사	71 (18.9)		7	5	5	19	1	1		5		114
관직소개	233 (62.3)	2 (18.1)	12 (21.1)	9 (12.8)	14 (15.6)	39 (32.2)	7 (26.9)	3 (14.3)	5 (83.3)	6 (27.3)	1	331 (41.4)
미입사	136 (36.4)	9	43	61	75	80	19	17	1	14	1	456 (57.0)
미상	5		2		1	2		1		2		13
합계	374	11	57	70	90	121	26	21	6	22	2	800

(14%)이었다. 전체적으로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생원진사의 관직 진출 정도는 소폭이지만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생원보다는 진사의 관직 진출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원진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관직 진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 분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서울 출신의 관직 진출이다. <표2>를 보면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800명 가운데 모두 374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가운데 음관으로 초입사한 경우는 모두 162명, 43.3%였으며, 문관으로 초입사한 경우는 71명, 18.9%, 도함하면 233명 62.3%가 관직으로 진출했다. 이는 평균보다 20%가 높은 수치로, 반대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출신들의 관직 진출이 매우 낮았음을 시사한다. 서울 출신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426명의 생원진사 입격자 가운데 음관 초

39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다.

입사자가 55명(12.9%), 문관 초입사가 43명(10.1%)으로 모두 98명(23%)만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77%는 미입사자로 남아야 했다. 즉, 출신 지역이 생원진사 입격 이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차이도 만들었다.

한편 지역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충청도 출신이 전체 121명 가운데 39명(32.3%)을 관직에 진출시켜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이들을 관직에 보낼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집권했던 서인들의 지역적 기반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상도는 70명 중 9명, 12.8%, 전라도는 90명 중 14명, 15.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함경도 지역 생원진사의 음관 진출이 매우 높은데, 덕릉(목조), 숙릉(익조비), 순릉(도조비) 등 이른바 북팔릉의 능참봉에 제수된 것으로, 이 외의 관직에는 더 이상 제수되지 못했다.

2. 방임의 관직 진출

조선 후기 생원진사의 약 27%가 음관으로 진출했고, 문과를 포함해 41%가 관직에 진출했던 것에 비할 때, 생원진사의 동방 사안을 맡았던 방임의 실질적인 관직 진출 정도는 어떠했을까. 필자는 조선 후기 방임의 관직 진출 역시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다. 여기서는 인조 대 이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다. 방임은 방중색장, 은문색장, 수권색장, 공포색장, 제마수만을 대상으로 했다.

필자가 방목을 통해 확인한 방임은 모두 855명이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97명, 58.2%가 음관으로 초입사했고, 문과급제자 가운데 문관으로 초입사 한 경우가 151명, 17.7%로 확인했다. 즉, 전체 855명 가운데 648명의 방임이 관직 진출에 성공했고 이는 전체의 75.8%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생원진사시 입격자가 평균적으로 27% 음관으로 초입사하며, 41%가 관직 진출에 성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넘는 비율로 방임

표3-조선 후기(인조~영조 20) 방임의 관직 진출⁴⁰

구분	음관	문과	소계	미입사	미상	합계
방중색장	368(62.8)	107(18.3)	475(81.1)	104(17.7)	7	586
은문색장	87(61.7)	23(16.3)	110(78.0)	30(21.3)	1	141
공포색장	5(15.2)	2(6.1)	7(21.2)	26(78.8)	-3	3
수권색장	9(25.0)	6(16.7)	15(41.7)	21(58.3)	-	36
제마수	28(47.5)	13(22.0)	41(69.5)	18(30.5)	-	59
합계	497(58.1)	151(17.7)	648(75.8)	199(23.3)	8	855

표4-시기별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⁴¹

구분	음관	문과	소계	미입사	미상	총합계
인조	52(58.4)	20(22.5)	72(80.9)	14(15.7)	3	89
효종~현종	77(64.2)	25(20.8)	102(85.0)	18(15.0)		120
숙종	145(58.0)	48(19.2)	193(77.2)	53(21.2)	4	250
경종~영조	94(74.0)	14(11.0)	108(85.0)	19(15.0)		127
합계	368(62.8)	107(18.3)	475(81.1)	104(17.7)	7	586

들은 관직 진출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방임 내에서도 관직 진출 정도의 차이가 뚜렷이 확인된다. 방임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꾸준히 선정되었으며, ‘문별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 기준을 두었던 방중색장의 경우는 586명이었는데, 음관으로 초입사한 경우는 368명, 62.8%에 달했고, 문과로 초입사한 경우는 107명, 18.3%에 달하여, 도합 475명, 81.1%가 관직 진출에 성공했던 것이다. 또한, 숙종 대부터 선정되기 시작한 은문색장의 경우도 모두 141명 가운

40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다. 시권색장은 수권색장으로, 제마수색장은 제마수로 통일했다. 방목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집계했다.

41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다.

데 110명, 78%로 방중색장보다 소폭 낮지만 이들 역시 매우 높은 비율로 관직 진출에 성공했다. 그 수는 적지만 제마수 역시 59명 가운데 41명, 69.5% 가 관직 진출에 성공하여서 평균 이상으로 관직에 나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수권색장의 경우 36명 가운데 15명, 41.7%, 공포색장의 경우 33명 가운데 7명, 21.2%만이 관직 진출에 성공하여, 오히려 평균 이하의 관직 진출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수권색장과 공포색장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수가 지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중색장이나 은문색장과 달리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집안 역시 방중색장에 비해 한미한 가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관직 진출 빈도 역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방임 가운데에는 방중색장과 은문색장, 그리고 제마수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상을 지닌 직책이며, 해당 직책을 역임하는 것만으로도 관직이 담보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음관 선정률이 63%에 가까워, 일반 생원진사의 27%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였던 점에서 방중색장이 지난 특권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은 조선 후기 인조 대부터 영조 대까지 내내 큰 이변 없이 유사한 비중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방중색장이 선정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직적 특혜를 받았음을 알려 준다.

전반적인 추세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수치는,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이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조 대부터 영조 대까지 관직 진출률은 80~85% 사이 수준을 보이며, 음관으로 진출한 경우에도 6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중색장의 평균 음관 진출인 62%, 관직 진출 8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방중색장의 관인적 위상이 조선 후기 내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근거이다.

그런데 <표4>에서 시기별 추이를 자세히 보면, 문과 급제자의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효종~현종 대와 경종~영조 대의 음

관 진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영조 대 음관 진출비는 74%, 문과 급제는 11%로 확연히 음관으로의 진출이 높아졌던 점도 주목된다. 이는 평균적인 음관 진출률인 62%나, 평균 문과 진출률 17.7%와 비교해도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영조 대 들어와 음관 진출이 증가한 점은 방중색장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숙종 대는 모두 25회 시험에서, 250명의 방중색장이 확인되는데 평균적으로 관직 진출에서 소폭 감소한 특징이 있다. 이 시기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 감소는, 숙종 대 한국정치와 맞물린 지극히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했다. 숙종 대는 서인과 남인이 집권을 번갈아 하는 환국이 여러 차례 단행되면서, 자연히 각 집권 시의 방중색장은 일정한 당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690년 기사환국 이후 남인 집권 시 방중색장이 된 이들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 정권으로 변모하면서, 10명 전원이 관직에 오르지 못한 경험도 했다. 이는 일전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유들이 중첩되어 숙종 대 평균 관직 진출의 감소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조 대 음관 진출률이 확연히 올라간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사실 방중색장의 음관 진출 상승은 숙종 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1700년대 들어오면서 서인계의 집권이 공고해진 이후, 방중색장의 음관 진출 비율은 70~80%를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히 높아졌다. 1699년 2번의 소과에서 20명의 방중색장 가운데 음관 진출은 9명(45%)에 그쳤다. 반면, 1702년부터 1719년까지 진행된 10번의 소과에서 100명의 방중색장은 무려 71명(71%)이 음관으로 초입사했다. 숙종 전체에 걸쳐 58%에 지나지 않았던 방중색장의 음관 진출이 71%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은 그 이전인 숙종 전반 환국 정치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당쟁의 희생으로 방중색장이 되어도 관직에 진출되지 못했는지 알려 준다. 한편, 이러한 숙종 후반의 상황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빠르게 음

관 진출을 높였던 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방중색장의 음관 진출에도 제한을 보였다. 이는 방중색장의 인선에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숙종 말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방중색장의 음관 진출과 이로 인한 특정 정치세력, 특정 가문의 정치 집중은 폐단을 야기했고, 그것이 경종 대와 영조 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결국 방중색장의 폐지로 구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 빈도는 시기 특성에 따라 소폭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관직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대로 방중색장의 위상과 그것에 선임된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했음을 알려 준다. 또한 숙종 대 전반의 환국정치 영향을 제외한다면, 인조 대 58%, 효종~현종 대 64%, 경종~영조 대 74%로 음관의 관직 진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기가 지나며 방중색장이 벌열의 음관 진출로로 보다 견고하게 작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3. 방임의 성분과 내력

이러한 방중색장의 관직 진출과, ‘벌열’로 언급되고 있는 실상은 실제 이들의 거주지와 조상의 관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해된다. 우선 방임의 거주지와 그들의 입사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5>는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방중색장 8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방임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가 684명(81%)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중색장 가운데 501명, 86.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13.2%인 76명만이 지방 거주자였다. 은문색장과 제마수 역시 방중색장과 거주지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공포색장은 12명, 37.5%, 수권색장은 9명, 25%만이 서울 거주자로, 대부분 지방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5 -방임의 거주지와 입사 여부⁴²

구분	방중색장	은문색장	제마수	공포색장	수권색장	합계
서울	501(86.8)	111(79.3)	51(86.4)	12(37.5)	9(25.0)	684(81.0)
입사	423(84.4)	90(81.1)	39(76.5)	6(50.0)	7(77.8)	565(82.6)
미입사	78(15.6)	21(18.9)	12(23.5)	6(50.0)	2(22.2)	119(17.4)
지방	76(13.2)	29(20.7)	8(13.6)	20(62.5)	27(75.0)	160
입사	51(67.1)	20(69.0)	2(25.0)	1(5.0)	8(29.6)	82(51.3)
미입사	25(32.9)	9(31.0)	6(75.0)	19(95.0)	19(70.4)	78(48.8)
합계	577	140	59	32	36	844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방중색장의 84.4%가 관직에 올랐고, 지방 거주자의 67.1%가 관직에 올라, 방중색장 가운데에도, 서울 거주자의 관직 진출이 용이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방 출신 방중색장이어도 생원진사의 평균 관직 진출률인 41%보다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 출신의 관직 진출률이 20% 내외에 미쳤던 정황을 보면 방중색장은 분명 관직 진출에 용이한 직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출신 방중색장은 76명으로 충청도(34명), 경상도(16명), 전라도(11명) 순으로 확인되는데 충청도 지역 출신 인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인의 정치적 지지 기반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청도 회덕 출신이 4명, 니산 출신이 5명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데 회덕 출신은 모두 은진송씨이자 송시열의 직계였고, 니산 출신은 모두 파평윤씨이자 윤중의 직계였다. 이 사례는 소론과 노론 두 계파의 수장의 지역적 기반과 집안, 그리고 방중색장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해 준다.

이어서 방중색장의 ‘별열’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별열의 기준에

42 괄호 안의 수치는 내율(%)을 나타낸다.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특정한 기준을 잡아서 서술하기보다는 사례를 선정하여 방중색장의 집안과 그 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로 필자가 임의로 선정했는데, 모두 5개 시험의 방중색장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1633년(인조 11) 방중색장 10명의 집안 내력을 보자. 김휘는 안동김씨로, 당시 병조판서였던 김시양의 아들이었다. 임부는 평택임씨로, 청난공신 임득의의 아들이며, 윤미는 양주윤씨로 당시 강원 감사였던 윤안국의 아들이었다. 조진양은 풍양조씨로, 대사간 조익의 아들, 홍주세는 풍산홍씨로, 우참찬이자 소무공신 홍보의 아들이었다. 조내양은 조진양과 형제였다. 서필원은 부여서씨로, 율곡 이이의 지우인 만죽현 서익의 증손이었고, 정시창은 영일정씨로, 외삼촌이 우의정 이행원이었다. 홍주후는 풍산홍씨로 안동대도호부사 홍립의 아들이자, 대사헌을 지낸 홍이상의 손자였다. 민희는 여홍민씨로 남인 별열 가계이자 지평 민옹협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10명 모두 이름만 들어도 내노라하는 당대 명벌 혹은 부친을 살아 있는 권력자로 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장원은 송시열과 이명식이었다.

이어 1669년(현종 10) 방중색장 10명은 집안과 부친 관력이 상당했다. 이심의 부친 이단하는 좌의정이었고, 조부는 택당 이식이다. 송광속의 부친은 좌승지 송시철, 강선의 부친은 대사간 강백년으로 해당 시기에 역임하고 있었다. 송병원은 동춘당 송준길의 손자이며, 김만길은 이조참판 김반의 손자이자, 사계 김장생의 증손이다. 민진장은 좌의정 민정중의 아들이자, 인현왕후의 사촌이었고, 홍만희는 영안위 홍주원의 아들이자, 선조의 첫째 딸 정명공주의 아들이기도 했다. 심현은 부윤 심제의 아들이자 우의정 심수경의 후손이다. 이봉조는 이조판서 이명한의 손자이자, 월사 이정구의 증손이다. 한성우는 우의정 한옹인의 증손자이다.

1708년(숙종 34)의 경우, 남극관은 영의정 남구만의 손자이고, 권담은 길

천군 판서 권분의 후손이었다. 조명진은 부사 조현기의 손자였고, 조영명은 풍양조씨 세가를 이룬 조인수의 아들로, 동생인 조문명·조현명이 모두 좌의정·영의정을 지냈다. 생종조부인 조상우 역시 우의정이었다. 한사역은 우의정 한웅인의 후손으로, 관찰사 한배주의 아들이다. 임광은 판서 임상원의 손자이고, 박필언은 참판 박동열의 고손이다. 오수채는 판서 오도일의 아들로, 영의정 추탄공 오윤겸의 증손이며, 조관빈은 당시 이조판서였고, 곧 우의정이 된 조태채의 아들이다. 심공은 이조참의 심수량의 아들로, 청성군 심정화의 증손이다. 즉, 권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백한 내력이 있다.

1725년(영조 1) 방중색장 10명 역시 살펴보자. 이천보는 연안이씨로, 월사 이정구의 후손이자 숙종의 국구인 김만기의 외손자다. 유욱기는 공조판서 유명웅의 아들이고, 심계는 예조판서 심택현의 아들이다. 김한은 인목왕후의 부친 김제남의 직계이다. 조관언은 김장생의 문인인 조상우의 증손이고, 심추현은 당대 이조판서 심택현의 사촌동생이다. 윤집은 윤두수의 현손이며, 공조판서를 지낸 윤계(尹堦)의 손자이다. 유온은 당시 승지 유태명·유복명 형제의 조카이며, 홍계희는 예조참의 홍우전의 아들이다. 조성규 역시 외가가 청송심씨 부제학 심유의 집안이다.

1744년(영조 20) 마지막 방중색장 10명은, 앞서와 달리 실권자인 부친을 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집안 내력을 보면 유력가의 집안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우선 이사정은 중종조 좌의정을 지낸 이유청 집안으로, 종조인 관찰사 이태연이 송시열의 처남이다. 황간은 종조부인 황홍이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유언옥은 조부가 동부승지 유명일이다. 조영진의 경우 종주부가 우의정 조태채이고 당숙 역시 우의정 조도빈이다. 민백종은 증조가 대사헌을 지낸 민시중으로, 여홍민씨 인현왕후 일가이다. 홍역은 남양홍씨로 부친이 대사간 홍용조, 조부가 참판 홍숙이다. 홍정유는 고조부가 영의정 홍명하였고, 홍계진은 경기감사 홍명원의 후손이다. 조덕수는 호조판서 조

정만의 손자이면서, 예조참판을 지낸 조희일의 후손이다. 김상숙은 한성판윤 김원택의 아들이자, 김만균의 증손으로김장생의 후손가 사람이다.

이처럼 5개의 시기별 사례 50명의 방중색장을 샘플로 살펴본 결과, 조선 후기 방중색장은 모두 집안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또 당대 실권을 가진 당상관 이상의 부친이나 조부를 둔 유력가의 자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필자가 명단을 확인하며 지나간 다수의 방중색장은 이름만 들어도 당대 명가의 자제들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즉, 방중색장 당사자는 잘 몰라도, 그 부친과 조부, 형제를 보면 당대를 주름잡는 정치계의 거물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중색장의 관력을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문과 급제를 제외한 음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방중색장은 모두 586명이고 이 가운데 음관으로 입사한 사람은 368명이었다. 이후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음관으로만 출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음관 진출 이후에 문과에 급제한 이들은 관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음관으로만 출사하여 음관으로 끝낸 이는 모두 274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참봉을 제수 받았으며, 감역이나 세마를 초입사로 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생원진사 입격 이후 평균 7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231명(84%)이 참상관으로 진출했다. 이로 보아 상당수의 음관이 참상관 진출까지는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평균 43세에 참상관이 되었고, 초입사 이후 평균 6년 정도가 걸려서 참상관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는 문과 급제자 평균 참상관 진출보다는 2년가량 늦은 것이지만,⁴³ 그럼에도 다수의 인사들이 참상관에 간다는 것은 흥미롭다. 더욱이 참상관

43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4(2020).

에 진출한 이들 가운데 207명, 89.6%가 외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즉, 참상관에 진출한 90%가 외직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들은 현감, 현령부터 군수, 부사, 목사까지 다양한 외관으로 진출했다.

반면 이 가운데 당상관에 진출한 이들은 22명에 그쳤다. 참상관 231명의 9.5%만 해당했다. 대부분 70~80대 노직으로, 통정이 되며 판결사, 오위장 등 노직당상에 수여된 경우였다. 한편 이 가운데 남대(南臺)나 음정(陰正) 등 이른바 산림직을 수여받은 경우도 있었다.⁴⁴ 남대의 경우 6명이 확인된다. 민진 후의 아들인 민익수와 민우수, 그리고 권상하·윤봉구·김원행·이세구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 인정받던 학자들이었다. 특히,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이며, 윤봉구는 권상하의 제자로, 호론계 학자로 이름을 높였다. 김원행은 김창협의 문인인 도암 이재의 제자로 낙론계 학맥을 이어받은 학자였다. 이세구 역시 박장원의 문인으로 서인 소론계의 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민익수와 민우수 형제는 민유중의 손자이자 학문에 전념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이에 따라 권상하는 좌의정, 윤봉구는 공조판서, 김원행은 공조참의, 민우수는 대사헌을 지냈고, 민익수와 이세구는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어 청요직을 지내기도 했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방중색장 가운데 음관으로 출사한 경우 다수가 참상관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상관으로 오른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외관 수령을 역임할 수 있었다. 당대 외관 수령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수치로 여겨진다. 반면 별별 가계의 방중색장이라 하더라도, 노직이나 남대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상관에 승진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⁴⁴ 남대나 음정 등 산림직에 관해서는 우인수, 『조선 후기 산림세력연구』(서울: 일조각, 1999)를 참고했다.

IV. 영조 대 공식 방회의 혁파 배경

조선 후기 내내 방임, 그중에서도 방중색장의 특권은 상당했다고 보인다. 규정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생원진사 입격이 발표되고, 방회의 구성을 위해 방중색장 등의 방임이 제수되면서부터, 이미 생원진사로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후 문과에 급제할 도전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음관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당연히 방중색장에 선임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특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방중색장의 선임에 관심을 보이며, 공식 방회의 구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방중색장의 제수보다 그 이전에 장원의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 장원은 방중색장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 이들이었다. 따라서 생원시 장원 1명과 진사시 장원 1명 등 2명의 장원이 지난 권한은 누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동기생들이 장원을 존경하며 나이나 관직에 상관없이 항상 우대하고자 했던 자세는 이와 같은 특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생원진사 시험의 성적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장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원은 시관들이 미리 시권과 함께 해당 인물의 집안 내력을 살펴본 이후에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장원 선정에서부터 이미 별별의 여부가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문, 즉 시관을 존경하고 그를 위해 은문연을 베풀어 주었던 당대 생원진사들의 행동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에 대한 보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 후기에 만연했던 좌주-문생제의 혼적이 조선의 생원진사시에서 어느 정도 잔존해 있었던 것이다.

방중색장의 선정과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문제는 조선 후기 내내 암묵적으로 지켜 왔다. 그런데 그 제도가 영조 대 들어와 급격히 폐지되기에 이

른다. 1747년 사마방목의 마지막 부분에 그간 당연시 존재해 왔던 방임의 명단이 사라졌다. 이때 세주에는 “장원이 선출하는 법이 혁파된 까닭에, 방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제임(諸任, 즉 방임) 역시 폐지했다.”고 명기해 두었다.⁴⁵ 즉, 방회의 구성과 방임의 폐지가 장원을 선출하는 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모든 방목에 동일한 문구가 기입되면서 더 이상 공식 방회와 방임이 선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는 방중색장보다 생원진사의 장원을 선출하는 것에 부정함이 있었던 것을 인식한 영조의 하교에서 시작했다.

사실 조선시대는 문과는 물론이고 생원진사의 시험에서도 규정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시관과 응시자의 상피는 물론이고, 시험장에서의 감독과 관리 역시 철저히 하고자 했다. 시험 성적을 채점할 때에도 이를 알 수 없게 하여 오직 글의 재주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부침이 있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기 위한 노력, 공정과 청의의 뜻을 이어 가려는 시도는 계속했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시험 자체를 취소하거나 이미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시험에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⁴⁶

시관들은 시험 성적을 매길 때 원칙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보고 판정하며, 여러 시관들이 들어가 논의하거나 애매한 경우 여러 신하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도 했다. 이때 실력이 없는 글이 선정되면 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

45 『崇禎三[再]丁卯式年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自古351.306-B224s-1747], ‘榜任’.

46 『肅宗實錄』25년(1699) 3월 11일. 예조참의 박권은 과거 시험의 부정한 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상소로서 시험의 기강을 잡고자 했다.

에,⁴⁷ 시관들이 임의로 장원을 뽑는 것은 원칙상 위배되는 행위였다. 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집안이나 배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음먹는다면 시관이 응시자와 결탁하거나, 유력한 집안 사람을 뽑기 위해 시권을 미리 피봉해 누가 쓴 것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⁸

이처럼 조선시대 내내 과거 시험에서의 공정성은 원칙상 공론에 의하여 실력에 부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던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안 내력이나 가문의 위상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도 공존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특히, 문과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던 생원진사 시에서는 장원의 선정에 있어서 완벽히 공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 역시 시기에 따른 부침은 있지만 장원의 선정에서 시관들이나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실력이나 성적과 관계없이 개입했던 사례는 자주 확인된다.

장원과 가문의 관련성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문과에서 김의정(金義精)을 장원에 삼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불평하여 말하기를 “김의정은 계통이 한미한 가문에서 나왔고 또 명망이 없으니, 대책을 잘 지었더라도 으뜸 자리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⁴⁹ 물론 당시에 이미, 문과의 성적은 시관이 사람의 이름을 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정한 다음 성명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후에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생원진사시에서 장원을 선정할 때 가문의 내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찍부터 존재했던 관습적이고 합의된 사안이었다. 명확하

47 『肅宗實錄』 23년(1697) 10월 6일. 지평 이만성이 시관들이 문장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48 『肅宗實錄』 1년(1675) 11월 1. 당시 남인들이 대거 합격하고 서인이 다수 탈락한 원인으로 시관과 거자들의 담합을 언급한다. 물론 이 사료는 서인의 시각으로 서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환국 시기 급제자의 면면을 보면 집권층의 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

49 『文宗實錄』 즉위년(1450) 10월 12일.

게 언제부터 이러한 관습이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전기 사례를 보면 매우 일찍부터 장원과 가문의 연관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래된 관습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한 것은 1747년(영조 23) 2월의 일이었다. 당시 영조는 생원진사시 장원을 직접 선정하면서, 당시의 시관들을 모두 파직하는 조치를 명했다. 당시 실록 기록에 따르면,⁵⁰ 국조 이래로 생원과 진사의 장원은 반드시 명망 있는 선비를 뽑았고, 매번 출방할 무렵 봉한 부분을 미리 열어 보고 1등을 정했다고 한다. 그 본 뜻이 문학을 승상하려는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국초부터 이미 생원진사를 뽑을 때 이름을 보고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쟁이 격화되면서 정쟁에서 승리한 쪽이 장원을 가져갔고 이름난 집안의 사람이 장원이 되었다고 한다. 즉, 어찌 되었든 장원을 뽑을 때 임의로 시관들이 그것이 사람의 중망을 지닌 자이든 집안이 좋은 자이든 그 이유에 상관없이 ‘이름’을 보고 뽑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런데, 당시 선정된 판서 이조의 손자 이재관, 이기진의 조카 이담이 모두 실력이 없는 자여서 영조가 도승지에게 이들을 선정한 이유를 묻고는 직접 모든 시권을 검토하고는, 개성 사람으로 문벌이 없는 허증(許增)을 장원으로 제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원진사시도 문과와 같이, 미리 이름을 엿보는 행위를 절대 금지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급진적 조치는 즉각 반발을 샀다. 영돈녕부사였던 조현명은 영조에게 생원시와 진사시의 장원의 지망(地望), 즉 문벌을 살피는 것은 조종조에서 현인을 선발하는 관문을 중요하게 였던 뜻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규모로는 공경의 자식을 서인으로 만들 수 없고, 서인의 자식이 공경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언급하며, 가문과 내력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역설했다. 그리고 당시 대신인 김시형·정우량·원경하 역시 조현명의 뜻에 동조했다.

⁵⁰ 『英祖實錄』 23년(1747) 2월 14일.

우의정 민옹수 역시 영조의 처분이 매우 과했다고 하면서, 생원진사 장원을 문벌을 들어 뽑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소과의 장원은 문과와 달라서, 관직에 나가는 길은 아니다. 장원은 여러 선비의 우두머리로서, 방원들은 장원을 모시고 삼청동에서 방회를 거행하는 것을 미담으로 여겼다고 한다. 즉, 공식 방회를 말한다. 장원은 또한 여러 방의 일을 감독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사족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⁵¹ 민옹수 역시 1710년 사마시 장원으로서 방중색장을 선정해 방회를 실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는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방회가 지닌 폐단을 강하게 비판했고, 직접 장원을 선발함으로써 방임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공식적 방회 역시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747년 사마방목에는 장원을 선출하는 법이 폐지되었기에, 방회도 없었고 방임 역시도 없었다고 적시했다.

연이어 1750년(영조 26)에도 역시 생원진사의 장원을 뽑는데 미리 엿보는 것을 절대 금지하는 명을 다시 내렸다. 영조는 모든 과거는 글로써 사람을 뽑아야지 이름을 보고 뽑으면 사사로운 것이 되고 결단코 공정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과장에서 사사로운 정을 행한 죄로 처벌할 것을 엄명했다.⁵² 당시 사관은 한림의 천거나 전랑의 선출에 이어서, 생원진사 장원을 사람의 공론에 따라 뽑는 법을 폐지한 이번 조치에 대해 기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⁵³ 그만큼 생원진사 장원이 지닌 상징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750년(영조 26) 방방에 친립할 때 새로 뽑힌 생원진사들이 장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참방행사에 늦게 들어오는 등 불손한 행

51 『承政院日記』, 英祖 23년(1747) 2월 17일.

52 『英祖實錄』 26년(1750) 2월 14일.

53 『英祖實錄』 26년(1750) 2월 14일.

위를 하기도 했다.⁵⁴ 또한 새로 뽑힌 장원인 박지익과 강필교는 동방들이 장원 대접을 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생원진사 장원의 권한, 그리고 방회의 모임 역시도 영구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V. 맷음말

생원진사시 방방이 끝나고 며칠 뒤에 거행되는 공식적인 ‘방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다. 이 방회의 모임은 장원이 주관하며 실무는 장원이 선출하는 방임들이 도맡았다. 이러한 방임 가운데 방중색장은 방중의 일을 전담하는 역할을 했다. 자연히 방중색장은 문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방중색장에 뽑힌 사람은 매우 영예로 여겼다. 여기에는 방중색장에 뽑힌 이들이 다른 동기생들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음관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 탓인지 실력 탓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동기생들보다 문과에 급제할 확률도 높았다. 그래서 방중색장은 평균 80%가 넘게 관직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생원진사로 관직 생활을 경험하는 이들의 평균적 수치인 40%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방중색장도 포함되었으니 이들을 빼면 방중색장이 아닌 생원진사의 관직 진출 비중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처럼 방중색장은 선정부터 관직 진출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출하는 방회 역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생원진사 공식 방회에서 확인되는 이들 상호 간의 관계는 조선 후기 내내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생원진사들이 음관으로 진출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사실 장원을 선출할 때도 간혹 시관들이 미리 이름을 보고 좋은 가문의

54 『英祖實錄』26년(1750) 2월 21일.

인사를 뽑았던 적도 있었기에, ‘시관-장원-방임’ 사이에 음관 진출과 관련한 정치적 관계망이 설정될 수도 있었다. 장원과 방중색장은 대부분 고관인 부친을 두거나 유력한 정치인을 직계로 둔 이들이었다. 서로 아는 문벌들 사이의 공정하지 않은 관로 진출의 경로로서 하나의 가능성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당대 사람들은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공경의 집안에서 공경이 나오고 서인의 집안에서 서인이 나온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좋은 문벌의 자제가 좋은 관료가 된다고 생각했다. 실력을 아주 간파할 수는 없었지만 문벌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관원 선발의 중요한 두 기준은 지별(地閥)과 문장(文章)이었다. 지별은 집안을, 문장은 실력을 말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를 뽑는 것은 조선시대 인선(人選)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지별만으로 인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것은 결국 지별에 의한 관원 선발이 당대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당시에 지별을 따졌던 것은 한미한 가문 출신의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펼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⁵⁵

1747년 영조는 시관과 장원의 이와 같은 불공정한 처사를 단박에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장원을 선출하면서 장원의 문벌과 이름을 보지 않고 실력만으로 뽑을 것을 염명한다. 영조의 이와 같은 의도는 사적인 인연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조치였다. 그런데 과연 영조의 이와 같은 조치가 불공정을 없애고 공정한 인사 선발이 가능하게 한 조치였을까.

당대 사관의 언급과 같이, 영조 대 들어와 한림의 친거를 없애고 이조전랑의 선출을 없애면서 젊은 관료들이 청요직을 통해 공의를 조성하는 길이 막

55 『正祖實錄』9년(1785) 11월 24일.

하기도 했다. 생원진사의 방임을 선정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본래 조선에는 노성한 대신들이 전부 파악하지 못하는, 젊은 신진들 사이에 합의하고 논의한 공정한 인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의를 토대로, 생원진사의 방임이 결정되고 문과급제 이후 승문원 분관이나 한림 천거와 같은 엘리트 코스에 오르는 사람이 정해지고, 또 홍문록과 이조전랑과 같이 참상관 이후의 엘리트를 추천하는 자생적인 경로가 있었다. 이는 나름 공정성을 바탕으로 유지한 제도였다. 그런데 영조의 조치로 이러한 제도적 원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사적 관계나 평판에 의지한 인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쟁이 개입되면 인선이 격화될 여지도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과감히 제거하고, 국왕 중심의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 인사권을 대신과 당상에게 맡기며 아래로부터의 전횡이 없어지게 하는 개혁이 곧 당쟁을 없애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차후의 영향이나 결과까지 영조가 모두 조정할 수는 없었다. 신진의 일을 신진에게 맡기는 오랜 전통이 깨지고 인사를 위에서 장악하게 되면서, 영조와 정조의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들어가 일부 소수의 세도가들에 의한 인사 독점의 여지가 생겨나고, 소수의 벌열이 아닌 사류들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서 이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지는 않았을까. 영조의 이와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金長生, 『沙溪全書』.

李奮, 『睡谷集』.

李集, 『遁村雜詠』.

閔遇洙, 『貞菴集』.

尹國馨, 『聞韶漫錄』.

張維, 『谿谷先生集』.

田祿生, 『埜隱逸稿』.

鄭經世, 『愚伏集』.

丁克仁, 『不憂軒集』.

崔岱, 『簡易集』.

洪履祥, 『慕堂集』.

黃胤錫, 『頤齋亂藁』.

『崇禎三[再]丁卯式年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351.306-B224s-1747).

2. 논자

김덕수, 「조선시대 방방과 유가에 대한 일고」, 『고문서연구』 49, 2016, 27~67쪽.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197~238쪽.

박정혜, 「16, 17세기의 사마방회도」, 『미술사연구』 16, 2002, 297~332쪽.

박현순, 「조선 후기 蔭官의 初入仕 임용」, 『규장각』 58, 2021, 345~389쪽.

배숙희, 「원대 과거제와 고려진사의 응거 및 수관」, 『동양사학연구』 104, 2008, 121~154쪽.

배숙희, 「송원대 과거를 매개로 한 동년관계와 동년 간의 교류」, 『동양사학연구』 132,
2015, 35~67쪽.

우인수, 『조선 후기 산림세력연구』, 서울: 일조각, 1999.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윤진영, 「임오년(1582) 사마시 합격 동기생들의 방회도」, 『문헌과 해석』 15, 2011.
- 이익주, 「공민왕대 개혁의 추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 현실』 15, 1995, 22~54쪽.
- 이태진,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 (上)」, 『진단학보』 34, 1972, 5~34쪽.
- 이홍렬, 「사마시 출신과 방회의 의의: 임오사마방회지도에 나타난 관원사회의 공동의식」, 『사학연구』 21, 1969, 93~122쪽.
- 전세영, 「태종 집권기 동년 급제자들의 관직 활동과 동년에 대한 태종의 인식」, 『인문과학연구』 37, 2018, 79~123쪽.
- 정치현, 「여말선초 과거문신세력의 정치동향」, 『한국학보』 17-3, 1991, 3108~3141쪽.
- 채웅석, 「목은시고를 통해서 본 이색의 인간관계망」, 『역사와 현실』 62, 2006, 75~110쪽.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3.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 후기 생원진사시가 끝나고 난 이후 합격자들의 모임인 '방회'와 이를 주도했던 '방임'들의 존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방회의 구성원인 방임들의 사회적 위상을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방임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던 존재인 방중색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필자는 조선 후기 생원진사 800명을 분석해서 이들이 대략 41% 정도 관직에 진출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 조선시대 방중색장 475명을 조사해 81%가 관직에 진출했음을 확인했다. 즉, 방중색장은 평균적인 생원진사들보다 대략 2배 높은 관직 진출 비율을 보였다. 이는 방중색장이 생원진사 내에서도 관직 진출에 유리했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방중색장들의 출신 성분을 분석했고, 방중색장의 87%가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이며 대부분 조선 후기 핵심 벌열가에 속하는 이들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다수가 참상관 이상의 관직에 진출했으며, 참상관에 오른 이들 가운데 90%가 외직을 경험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방중색장은 벌열가의 자제들 가운데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들은 생원진사의 이력만으로도 다수가 관직에 진출, 또한 관직에 진출한 이들은 거의 외직을 경험한 존재로서 관직 진출상 중요한 혜택을 누리는 존재였던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방중색장의 혜택은 생원진사의 선발부터 방중색장의 선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실력보다는 집안의 영향이 중요했던 조선시대 관직 진출의 한 특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중색장의 혜택은 1747년에 영조가 전격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른다. 영조는 탕평을 시행하면서 인사권이 신진관료들에 있던 당대의 관습이, 당쟁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여겼다. 이에 일찍부터 한림과 전랑의 자천권 폐지를 관철시켜 능력 중심의 인사, 국왕과 대신 중심의 인사로 변경했다. 그 일환으로 방중색장이 문벌들의 음관으로 가는 길로 파악하고 이 역시 폐지했던 것이다. 영조는

능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신과 임금에게 귀속된 인사권을 실현하고자 신진관료들의 공의를 통한 인사 정책을 제어했다. 이 과정에서 방회가 사라지고 방증색장의 인사 특혜 역시 자연히 소실되었던 것이다.

투고일 2024. 9. 19.

심사일 2024. 10. 31.

게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방회(榜會, Banghoe), 방임(榜任, Bangim), 방증색장(榜中色掌, Bangjoong-saekjang), 음관(蔭官, Eumgwan), 관직 경로(官職 經路, an official route), 인사권(人事權, the right to personnel management),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the test for Sangwon-Jinsa)

Abstract

The Composition of the “Banghoe (榜會)”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Bangim (榜任)” in the Late Joseon Dynasty
Na, Younghun

This study examines the “Banghoe (榜會),” who were a group of successful applicants of Saengwonjinsashi (生員進士試)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Bangim (榜任) that led i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status of Bangim (榜任), with a focus on the advancement of government offices. This study analyzed 800 people of Saengwon-jins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found that approximately 41% were entering government offices. Subsequently, a survey of 475 people of Bangim (榜任) was conducted, and 81% were confirmed to have entered government offices. In other words, Bangim (榜任) exhibited approximately twice as high a rate of entering government positions as the average Saengwon-jinsa. The results suggest that Bangim (榜任) was advantageous for entering government positions even within Saengwon-jinsa.

Subsequently, the background of Bangim (榜任)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confirmed that 87% lived in Seoul, and most belonged to key aristocra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addition, many entered government offices above Chamsanggwan (參上官), and 90% receiving local government. These benefits of Bangim (榜任) also exhibited the characteristic of entering government offices in the Joseon Dynasty, where the influence of the family was more important than skills.

The benefits of Bangim (榜任) was abolished by King Yeongjo in 1747. While implementing the Tangpyeong policy (蕩平), King Yeongjo thought that the customs of the time when young officials had personnel rights deepened the party strife. As part of this, Bangim (榜任), which was the route to the nobility's bureaucracy, was abolished. To realize the personnel rights attributed to the monarch, King Yeongjo controlled the personnel policy through public discussions on new officials. In this process, Banghoe (榜會) disappeared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personnel affairs of Bangim (榜任) naturally disappeared.